

코이코, 2024 일본 코스메 오사카 박람회에서 한국관 운영

윤강희 | 승인 2024.10.01 10:09

K뷰티 향한 일본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 이끌어



코이코(KOECO, 대표 김성수)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에서 개최하는 2024 코스메 오사카 & 코스메 테크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관을 운영했다.

코스메 오사카 & 코스메 테크 박람회는 일본 서부에서 개최하는 B2B 코스메틱 종합 전시회로,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다. 일본 서부 뷰티 시장을 주도하는 업계 관계자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며 서일본 지역을 대표하는 화장품 전문 전시회로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5회째 개최하는 이 전시회는 8개국 200여 개사가 참가하고 약 14,000명이 참관하였으며 4홀에 화장품 및 살롱용 에스테틱 브랜드, 5홀에 화장품 원료 및 패키징, ODM/OEM, 제조기기 전문 업체들이 자리하였다.

코이코는 금년 코스메 오사카 박람회에서 한국 뷰티 기업 16개사를 이끌며 한국관을 조성, 전시장 4홀 내 메인 동선에 위치하며 많은 일본 바이어에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참가사 수다이바이오테크놀로지(SUDAI BIOTECHNOLOGY)의 수다이(Sudee), 쓱쓱컴퍼니(SSUKSSUK COMPANY)의 헤트라스(hetras), 피죤(PIGEON)의 칼앤한스(Karl&Hans) 등은 기능성 화장품 및 다양한 천연 원료 기반 스킨케어, 클렌징, 바디케어 제품 등을 선보였으며, 참가사 디에스메디(DSmedi), 코바스(KOVAS), 이너프화장품(ENOUGH) 등은 저주파/고주파 미용기기, 마스크팩, 메이크업 제품 등을 선보이며 한국 뷰티 제품의 기능성과 시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세계 유명 전시 주최사 RX의 현지 지사인 RX JAPAN이 개최, 해외 뷰티 전시 전문 국내 주관사 코이코가 한국공동관을 주관했다. RX JAPAN은 그간의 일본 내 우수 전시 개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바이어와 참가사 니즈에 따른 다양한 뷰티 세미나와 매칭 프로그램, 바이어 대상 참가사 DM 프로모션 등으로 참가사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었다. 또한 한국 참가사를 대상으로 사전 웨비나를 진행하여 전시회 및 일본 현지 바이어의 특징,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과를 올리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참가 기업이 전시기간 비즈니스 미팅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K-뷰티를 향한 일본 소비자 및 뷰티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은 약 4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5% 증가했다. 현지 트렌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 상반기 일본 현지 Z세대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뷰티 브랜드 상위 10개 중 한국 브랜드는 무려 4개가 속해 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K뷰티와 함께 K푸드, K콘텐츠 등 전반적인 K컬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한국 뷰티 기업들의 일본 진출은 일본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다지며 역대 최대 화장품 수출액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뷰티 브랜드의 지속적인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동 전시의 한국공동관 주관사인 코이코에서는 2025년 1월 개최되는 코스메도쿄&테크 박람회 외 2025년 7월 라이프스타일 위크 도쿄(헬스 앤 뷰티 박람회), 2025년 9월 코스메 오사카&테크 박람회에 한국 참가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강희